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성 약물의 시판후 조사

울산의대 가정의학교실 : 김영식 · 박혜순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 신호철 · 김경수

중앙의대 가정의학교실 : 이 신 휘

인제의대 가정의학교실 : 박 태 진

**연구목적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성 약물(NSAID) 투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의 발생율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NSAID를 투여받은 퇴행성 관절염, 두통 및 기타 근육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후 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 :** 1994년 2월 부터 1994년 10월 까지 6개 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여 NSAID를 최소한 1주이상 투여받고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환자 36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중 남자가 84, 여자가 248명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94명, 40~49세 88명, 50~59세 108명, 60세 이상이 78명 이었다. 최초 약물투여 후 1, 2, 3, 4주에 추적 관찰하였다.

**결 과 :** 조사대상자에서 흔히 발생한 부작용은 부종 50예(13.6%), 복통 47예(12.8%), 소화불량 37예(10.1%), 복부 팽만감 10예(2.7%), 변비 8예(2.2%), 설사 6예(1.6%) 순이었다.

NSAID 투여후 부종 발생율이 여자에서 16.6%로서 남자에서의 3.6%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5$ ), 50대 이상에서 19.4%로 40대 이하에서의 8.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NSAID 투여후 복통 발생율은 위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23.4%로서 위염과거력이 없는 경우의 11.9% 보다 높았으며( $p < 0.05$ ), ketorolac trometamine 투여시 20.8% Etorolac 투여시 15.2%로서 Piroxicam의 8.8%,  $\beta$ -cyclodextrin piroxicam의 5.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NSAID 투여후 소화불량 발생율은 etodolac 투여시 20.2%로서 piroxicam의 6.3%, ketorolac trometamine의 5.9%,  $\beta$ -cyclodextrin piroxicam 4.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

**결 론 :** NSAID 투여후 발생한 흔한 부작용은 부종(13.6%), 복통(12.8%), 소화불량(10.1%) 등이었으며,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성별, 연령별, 약물의 종류 및 위염과거력 등에 따라 발생율에 차이가 있었다.